



7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넥센의 준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두산 유희관, 홍성훈, 김진욱 감독, 넥센 염경엽 감독, 이택근, 박병호(왼쪽부터)가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양 팀의 1차전은 8일 목동구장에서 열린다. ()안 숫자는 정규시즌 순위

“박병호 무섭지 않다” 유희관의 돌직구

중고신인 유희관의 '준PO 선전포고'

유희관 “목동구장서 홈런 맞은 적 없다” 두산 ‘박병호 경계령’ 발동 불구 자신감 박병호도 천천히 인정? “한번 물어봅시다”

“박병호는 무섭지 않다” 두산 중고신인 투수 유희관(27)은 자신의 상징이 된 느린 볼로 유명세를 탔지만, 취재진 사이에선 신인답지 않은 솔직하고 재미있는 입담의 소유자로도 유명하다. 7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준플레이오프(PO) 미디어데이에서도 그는 과감하고 솔직한

입담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준PO에서 두산이 가장 경계하는 선수는 단연 넥센 4번타자 박병호(27)다. 타격 4관왕에 빛나는 박병호는 지난달 29일 목동 두산전에서 홈런을 3개나 뽑아내는 괴력을 과시하며 두산에 공포심을 불어넣었다. 두산 김진욱 감독은 “그 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맞은 충격이 컸다. 포스트 시즌에서 박병호는 더욱 위협적인 존재임에 틀림없다”고 털어냈고, 주장 홍성훈 역시 “(박)병호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선수다. 목동에서는 일단 박병호는 제쳐두고 후속 타자들과 승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박병호 경계령’에도 불구하고 유희관은 끔찍하지 않았다. ‘박병호에게도 70km대 느린 커브를 던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거침없이 답변했다. 유희관은 “상황이 되면 던질 것이다. 박병호는 무섭지 않다. 목동구장에서 피홈런도 없었다. 오히려 다른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이 더 격정적이다”며 박병호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 시즌 유희관과 박병호는 6차례 승부했다. 6타석 4타수 2안타 2사사구 1삼진. 타율은 5할이지만 홈런과 타점은 없었다. 박병호도 “퓨처스리그에서 만났을 때도 (유희관을 상대로는) 좋은 타격을 한 기억

이 없다”며 멋쩍게 웃었다. 첫 포스트시즌을 앞둔 유희관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꿈만 같다. 시즌 말미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시즌 중에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쉬는 날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제(6일)는 정말 야구 생각만 했다. 내 공을 믿고 던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찬 모습을 보였다. 3차전 선발로 예정된 유희관의 말에 박병호 역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두 사람의 대결은 어떤 결말을 낳을까. ()안 숫자는 정규시즌 순위

패기의 염경엽 vs 경험의 김진욱

PS 리포트

넥센의 ‘패기’와 두산의 ‘경험’은 그라운드 밖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7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준플레이오프(준PO)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1년차’ 넥센 염경엽 감독은 모든 질문에 패기 넘치는 정공법을 구사했고, 지난해 이미 준PO 미디어데이를 경험했던 두산 김진욱 감독은 구멍이 답을 타 넘듯 여유 있는 화법으로 웃음을 안겼다. 대표적 예가 있다. 두 감독은 각자 ‘준PO에서 비장의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염 감독은 “비

장의 카드로기보다는 키포인트와 같은 선수들”이라며 투타에서 상세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선수들을 언급했다. “투수 쪽에서는 강윤구와 김명민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 투수 운용이 달라질 것이다. 타선에서는 7번과 8번에 배치된 문우람, 유한준, 이성열이 상위타선에서 내려오는 찬스들을 얼마나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상세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포스트시즌에서 누가 갑자기 잘 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투수와 타자 모두 전 선수가 다 돌아가면서 ‘미치는’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양팀 감독들 화법서도 팀 컬러 드러나 ‘성실답변’ 염 감독 ‘능구렁이’ 김 감독

을 밝혔을 뿐이다. ‘상대팀 엔트리에서 제외해 버리고 싶은 선수’를 묻는 질문에도 양상은 비슷했다. 염 감독이 “야수 쪽에서는 민병현과 오재원, 투수는 노경은을 빼고 싶다”며 경계대상들을 꼭 집어 언급한 반면 김 감독은 “나이트와 벤 헤켄. 그러면 타자는 안 빼도 된다”며 웃어 보였다. 또 한 번 허를 찌른 염 감독이 “1·2선발을 빼면 우리는 경기가 안 되지 않느냐”며 너털웃음을 지을 수밖에. 감독들의 입담 싸움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도드라진 양 팀의 팀 컬러였다. ()안 숫자는 정규시즌 순위

준PO 미디어데이 빅마우스

- 광장히 아쉬워서 잠 못 잔 게 사실입니다. (넥센 염경엽 감독, 페넌트레이스 최종전에서 한화에 겨 2위를 차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문자)
- 무조건 나이트, 벤 헤켄입니다. (두산 김진욱 감독, 상대 엔트리에서 빼고 싶은 투수 1명, 야수 1명을 얘기해달라는 질문을 받은 뒤 꼭 2명의 투수를 빼고 싶다며)
- 경험 없는 팀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습니다. (넥센 이택근, 넥센의 포스트시즌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지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며)
- 팀 구성원 모두의 생계가 걸린 한 판입니다. (두산 홍성훈, 준플레이오프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며)

2013 한국야쿠르트세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대진표



준PO 넥센 vs 두산 엔트리 분석

김병현·이용찬 없이 간다

넥센, 송지만·이성열 투입 포스트시즌 경험 수월

올해 준플레이오프(준PO) 엔트리가 발표했다. 양 팀은 투수진을 11명씩으로 구성하고, 똑같이 2명의 포수를 포함시켰지만 내·외야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넥센이 7명, 두산이 9명으로 내야진을 구성했고, 외야진은 넥센이 7명, 두산이 5명이었다.

불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두산은 이용찬을 결국 빼고 준PO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수술 후 아직 자기 공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평가 때문이다. 그 대신 올 시즌 중간계투로 팀 허리를 든듯히 지친 오현택과 윤명준이 생애 첫 가을야구무대를 밟게 됐다. 올해 깜짝 선발로 활약한 유희관도 데뷔 후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 초대됐다. 가을야구를 치러본 선수가 27명 엔트리 중 10명밖에 되지 않는 넥센은 한국시리즈 우승을 2차례(전 한화·현대) 경험한 송지만을 명단에 올리며 노련함을 보유했다. 예상대로 집중투수 김병현은 빠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내야진 구성. 큰 경기일수록 수비의 중요성은 두 말하면 입이 아프다. 작전구사 비율도 정규시즌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내야진의 경험이 절대적이다. 그런 부분에서 두산 야수진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 내야뿐 아니라 외야에서도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아보지 않은 선수가 1명도 없다. 반대로 넥센은 김민성(전 롯데)과 서동욱(전 KIA)을 제외하고 가을야구 경험이 전무하다. 특히 팀의 핵심선수인 박병호, 서건창, 강정호가 큰 경기를 치러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넥센 염경엽 감독은 내야보강보다는 ‘경험수월’을 위해 포스트시즌을 뛰 어본 외야수 이성열(전 두산)과 송지만을 넣으며 엔트리를 완성했다. ()안 숫자는 정규시즌 순위

2013 준플레이오프 엔트리 (팀당 27명)

| 넥센 | 포지션 | 두산 |
|---------------|-----|-------------|
| 나이트 벤헤켄 오재원 | 투수 | 김선우 이재우 정재훈 |
| 문성현 이정훈 송신영 | | 노경은 오현택 유희관 |
| 한현희 강윤구 김명민 | | 홍성삼 윤명준 변진수 |
| 마정길 손승락 | | 니퍼트 헨킨스 |
| 허도환 박동원 | 포수 | 양익지 최재훈 |
| 박병호 서건창 김민성 | 내야수 | 홍성훈 손시현 최준석 |
| 강정호 서동욱 유재신 | | 이원석 오재원 김재호 |
| 김지수 | | 오재일 최후준 허경민 |
| 이택근 송지만 유한준 | 외야수 | 임재철 이종욱 김현수 |
| 이성열 문우람 오윤장기영 | | 민병현 정수빈 |

※붉은 글씨는 포스트시즌 첫 출장선수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 @mkh2357

채무승계의 상속 순서

1. 배우자 및 자녀
2. 남편의 부모
3. 남편의 형제
4. 남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방계혈족이란? 아버지의 부계 및 모계의 3촌 조카와 사촌형제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을 포함하고 이모, 고모, 외삼촌 등을 총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값아도 줄지 않는 대출금, 다가오는 이자 상환일, 부담스러운 원리금 준비의 걱정, 채권 추심과 독촉장, 가려서 받는 전화!

대출의 원금 ↑ 이자에 이자 ↑

돌려막기 ↔ 쉼 순환

개인(법인)회생, 파산 및 각종 법률 상담

▶ 내가 평생동안 모든 재산(돈)만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 이자 100%탕감! 원금 최고 90%탕감! 신속, 정확한 처리! 변호사 수입료(회생, 파산) 전액 분납(5개월) 가능!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입하기 위하여 또! 대출을 받으시나요?

수시연체

돌려막기

다중채무

신용불량

채무(빚) 독촉
불법 채권 추심

채권
추심
금지
명령

개인회생
개인파산
↓
무료상담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고객 맞춤 전국 출장 서비스 제공

가까이 변호사 수입료 100% 환불

▶ 상담 및 진행 절차

1. 변호사님 또는 사무장님의 무료 전화 상담
2. 개인회생 및 파산의 자격 여부 확인
3. 서류 배송 직원이 고객 요청 장소로 요청일에 전국 무료 출장
4. 서류 배송 담당 직원이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인의 관련 서류 접수
5. 부채증명 및 각종 서면 작성후 관할 법원에 접수
6. 사건 번호 부여 및 정지, 금지명령신청등의 순서로 신속히 진행

※ 서류 배송 담당 직원의 방문없이 고객님께서 서류를 우편으로 직접 보내주셔도 됩니다.

민사사건/형사사건/가사사건 및 각종 법률 무료 상담 (서울, 경기) 개인 및 법인-회생, 파산 (전국 가능)

처리 사고 전국 대표 ☎1661-7249

• 1차 필요서류(등사무소)
- 등본(1), 초본(1, 이사경력포함),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주민등록사본(앞, 뒤), 인감증명(채권자수 + 4장), 인감도장(약3주, 사무소보관)

법무법인 제이 (무료 법률 상담) 전국 대표 ☎1661-7249

저희 “법무법인제이”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젊고 유능한 대표변호사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은 경력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등 법무, 세무회계, 재무, 기획, 노무, 관세, 부동산, 기업인수 합병 등 개인 및 기업운영의 전 업무를 두루 아우르는 각 분야별 유능한 실무진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서 일반 형사, 민사, 행정사건의 조속한 해결은 물론 다양하고 탄탄한 인맥과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고 귀하와 귀하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 구성원 일동 / www.j-lawfirm.co.kr)